

 숨은그림찾기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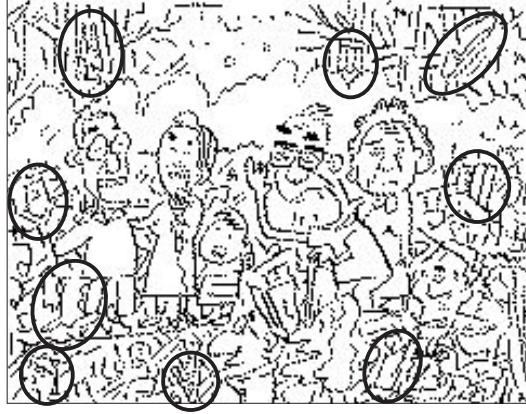

## 남편의 습관

오락을 밥먹듯이 하던 남자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했다. 신혼 여행을 가서 해야 할 작업(?)은 하지 않고 신부의 가슴을 잡고 왼손으로 좌우로 흔들고 오른손으로 콕콕 찌르며 오락하는 자세를 취했다. 기다리다 짜증이 난 신부가 말했다.

"자기야, 코드나 끊고 해."

## (첫)①보세요

국자, 디리미, 열대아, A자, 잡자리, 셔틀콕, 음표, 새집, 갈매기



## 지난주 정답

송사리, 새집, A자, 디리미, 우리나라 지도, 펜촉, 열대아, 슬리퍼, 몽당연필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올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송향철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이종민 <나주시 금계동>

 리빙 센스

## 살림 재활용하기

## ◇ 달걀 껍질

입구가 좁은 유리병에 식용유 등을 넣길 때 깔대기가 없을 경우 달걀 껍질을 깔대기처럼 쓸 수 있다. 껍데기 중 뾰족한 부분에 바늘이나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내용물을 끌기면 된다. 달걀 껍데기가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도 않는다.

## ◇ 피자박스

피자박스를 깨끗하게 모아두었다가 제사나 명절날 부침개를 담아두면 좋다. 피자박스에 햄과 기름종이를 깔아서 담은 부침개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부침개가 남았을 때는 뚜껑을 살짝 덮고 배란다에 내어놓으면 통풍도 잘되고 기름기로 쏙쏙 잘 뺄수 있다.

## ◇ 우유팩

폐식용유를 버릴 때 우유팩을 활용해 보자. 우유팩 속에 신문지를 둘러 넣고 여기에 폐식용유를 부으면 된다. 신문지가 식용유를 빨아들여 흐르지 않는다.

##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조선 4대 임금인 세종은 당시 사용되던 한자가 중국어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로 우리말과 구조가 달라 백성들이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는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애민정신, 우리 정신에 맞는 우리 말을 위한 주체·자주 정신 그리고 한자음의 정리와 통일된 표기를 위한 실용 정신이 바탕이 됐다. 1443년 음력 12월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한 세종은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명명하고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새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응례를 책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인지 등 집현전의 8학자가 세종 28년(1446년) 글자이름과 똑같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한문해설서를 발간하였다.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하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에는 세종 어제 서문과 훈민정음 음가 및 운율법을 밝힌 예의편이 제자재,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음자례 등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제 1부는 세종이 직접 지은 것으로 새문자를 창제한 목적을 천명한 훈민정음 서문과 함께 새 문자 28자가 차례로 예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을 결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 예구도 기록되어 있다.

제 2부에서는 젊은 학자들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기술하고 있다. 훈민정음은 전체 분량이 본문 4장, 주석과 정인지의 서문 29장 등 총 33장으로 되어 있다.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조선어연구



1446년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한문해설서 훈민정음 중 세종대왕의 서문.

회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이날은 제1회 '가가날'로 정하였다. 그러나 1940년 7월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반포일이 9월 '상한(上瀚)'으로 기록되어있자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독창적인 문자 창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해설서가 책으로 출판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한글 반포 교재의 성격을 지닌 훈민정음은 지난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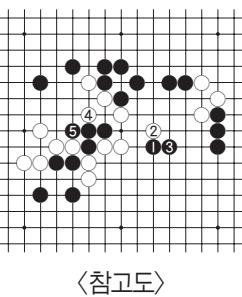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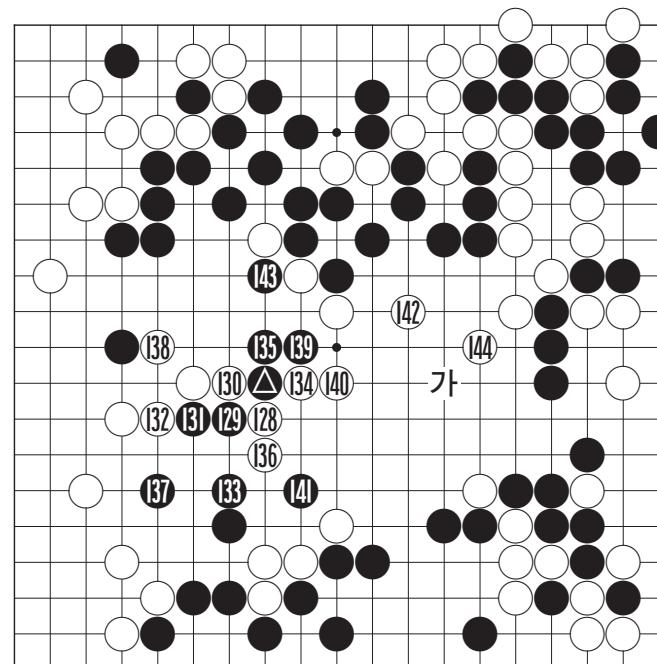
##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 아마최강부 결승

## 사활 건 도박

개인전 준결승 9보(128~144)

白 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흑 1로 중앙  
을 봉쇄하자 천  
지가 온통 암흑  
으로 변하고 있  
다. 쳐들어 갈 것  
인가, 깎아 갈 것  
인가. 이제는 백  
도 결단을 내려  
야 한다.

백 128로 불여간 수가 목숨을 건 도박으로  
승부수였다. 이 수로는 먼저 144에 두어 삭  
감하면서 동태를 살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흑이 '가'에 두어 점점 쳐들어 가는 것은 포

기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한 집계산 대신 아  
예 결판을 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판사판의 기세싸움이다.  
심재우 6단도 129로 젖혀 강력하게 차단에  
나서고 신계성 6단도 백 130으로 맞ество이 순  
식간에 백 140까지 목숨을 건 공방전이 펼쳐  
지고 있다.

접체절명의 순간에 심재우 6단이 갑자기  
흑 141의 타협책을 들고 나온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강력하게 공격했으면 5까  
지 백이 살기 어려웠다. 과연 144까지 살  
려주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SAKA 월도리조트

## 굿모닝 잉글리쉬 &lt;1162&gt;

Can I ride with you to the wedding?  
결혼식장에 가는 당신 차, 함께 타도 되요?

A : Can I ride with you to the wedding?  
B : Sure, Let's leave around noon.  
A : Yeah, that will give us plenty of time to get there.  
B : You don't want to be later for a wedding.

A : 결혼식장에 가는 당신 차, 함께 타도 되요?  
B : 그럼요, 정오쯤 해서 떠나도록 합시다.  
A : 좋죠, 그러면 도착하는데 시간이 충분하겠네요.  
B : 당신, 결혼식에 늦게 가고 싶진 않겠죠.

\* ride with : ~의 차에 함께 타다  
\* around+시간 = ~쯤 해서  
\* plenty of ~ = enough ~  
\* be later = go later

## 오하요우 니흔고 &lt;1162&gt;

ソウルへ行って來(き)ました.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A : 金さん, 先週(せんしゅう)の日曜日(にちようび)は何をしました.  
B : ソウルへ行って來(き)ました.  
A : ソウルへ行って何をして歸(かえ)って來(き)ましたか.  
B : 先生に會(あ)って相談(そうだん)をして歸ってきました.  
  
A : 김씨, 지난주 일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B :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A :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B : 선생님을 만나서 의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先週(せんしゅう) : 지난주  
日曜日(にちようび) : 일요일

## 니하오 쟁구워 &lt;239&gt;

## 多少钱?

얼마입니까?

A : 多少钱?  
duoshao qian  
多少钱?

B : 二十五块。  
ershiwǔ kuài  
多少块?

A : 给你钱。  
gěi nǐ qián  
给你钱。

B : 谢谢。  
xièxie  
谢谢。

A : 钱吗呢?  
qian ma ne?  
钱吗呢?

B : 25塊입니다.  
25kuài  
25塊。

A : 钱要我吗?  
qian yào wǒ ma?  
钱要我吗?

B : 不用。  
bù yòng  
不用。

A : 고맙습니다.  
gǎomìndu  
谢谢。

钱 [qián] 钱

给 [gěi] 给

不 [bù] 不

## 한자 이야기 &lt;879&gt;

## 象著玉杯 (상저옥배)

상아 상, 젓가락 저, 옥 옥, 잔 배

상저옥배(象箸玉杯)는 삼아 젓가락과 옥 솔진이라는 뜻이지만,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비유하는 말이다. 즉 하찮은 낭비가 나라를 망치는 사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紂)왕이 어느 날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게 하였는데, 숙부(叔父)인 기자(箕子)가 "상아 젓가락이 나라를 망친다"고 걱정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기자의 말에 의하면, 상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면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질그릇이 성에 차지 않아 뿐만 아니라 그릇을 만들게 하고, 다음은 거기의 복장을 호사스럽게 하고, 그 다음은 먹을 때의 복장을 호사스럽게 하고, 그 다음은 홍화로운 궁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상아 젓가락이 두렵기 그지없다고 하였다.(韓非子, 喻老篇)

기자의 걱정처럼 5년이 지나자 않아 주왕은 백성의 고혈(膏血)을 짜내어 '녹대(鹿臺)'라는 궁궐을 짓고, 그곳의 연못을 술로 가득 채웠다.(주지, 酒池) 또 고기를 나무에 매달아(육림, 肉林) 놓고, 그 사이를 남녀가 알몸이 되어 쫓아다니며 즐기다가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